

통영 : 대한민국 도슨트

이서후 지음

21세기북스

**‘대한민국 도슨트’ 여섯 번째 도시
새롭게 피어나는 문화도시, 바다의 땅 통영!**

경남에서 가장 많이 놀러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까지 풍부한 통영
하나의 지역을 오롯한 한 권의 책으로
만날 수 있는 지역 토박이가 전해주는 감성과 이야
기가 공존하는 생동감 있는 이야기이다.

통영을 놀러 가기 전에 우리 통영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주는 책 한권 읽어보는 것 추천한다.



경남대표도서관 추천 도서



밥장님! 어떻게 통영까지 가셨어요?

밥장 지음

남해의 봄날

일 816.7-밥72밥

통영에는 살수록 설레고 재미난 것들이 많다!

3년간 통영에서 만난
사람들의 노력과 고민,
새로이 발견한 통영의 모습을
그림일기에 담았다.

밥장이 그려서 보여주는
통영의 생생한 풍경과 이야기들은
솔직하고 진솔하다.

경남대표도서관 추천 도서

그림으로 나눈 대화

화가 전혁림에게 피우는 아들의 편지

그림으로 나눈 대화

전영근 지음

남해의봄날

일 650.4-전64그

거장의 삶과 예술을 아들의 기억으로 되살린 아름다운 그림 편지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전혁림 탄생 백 년을 맞아
그의 아들 전영근 화백이 아버지와의 추억을 글과
그림으로 풀어낸 책

언젠가는 넘어서야 할 스승, 전혁림 화백에게
아들이 보내는 그림 편지이자 문학과 음악, 미술 등
당대 화려한 예술혼을 꽃피웠던 통영의 미학을
만날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하다.

+ 더 봐야한다면 봉숫골 전혁림 미술관 투어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양승훈 지음

현대문학

일 559.4104-양57중

**“찬란한 황금기를 뒤로한 채,
누가 떠나고 누가 남았나?”**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작가는
조선소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침체기에 빠졌던 조선소,
특히 거제도 조선소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조선소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한다.



빛의 과거

은희경 지음

문학과 지성사

일 813.7-은97빛

**은희경을 읽는다는 것은 언제나 한국
현대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된다.**

2017년의 ‘나’는, 작가인 오랜 친구의 소설을
읽으면서 1977년 여자대학 기숙사에서의 한때를
떠올린다.

같은 시간을 공유했지만 서로가 기억하는 ‘그때’는
너무나 다르다. 갓 성년이 된 여성들이 기숙사라는
낯선 공간에서 마주친 첫 ‘다름’과 ‘섞임’의 세계. 기
숙사 룸메이트들을 통해 다양하며 입체적인 여성
인물들이 제시되고 1970년대의 문화와 시대상이
세밀하게 서술된다.

모월모일

박연준 지음

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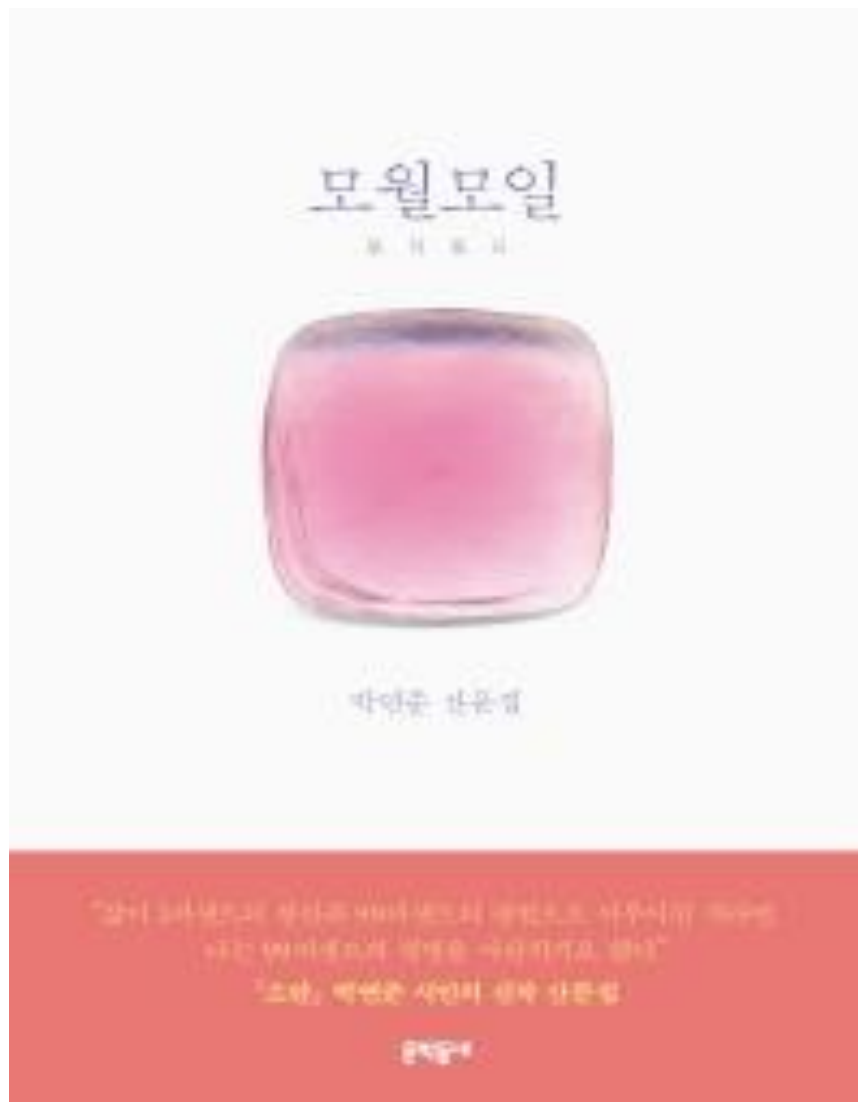
일 814.7-박64모

**“이제 겨우 말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타인과의 접촉은 물론이고, 가급적 말도 섞지 않게 되면서 우리에게 일상과 평범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더욱 느꼈다.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요즘이다.

작가는 겨울고양이, 하루치 봄, 여름비, 오래된 가을로 총 네 개의 부로 구성하여 그 계절에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계절에만 포착되는 풍경과 소리, 맛과 감정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 더읽어야한다면 박연준<소란>





아직 멀었다는 말

권여선 지음

문학동네

일 813.7-권64아

**“소설이 주는 위로란 따뜻함이 아니라
정확함에서 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시대를 많이 보여준다는 걸
느낄 수 있다.

단편소설집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생활비를 부담하는 계약직 선생님,
혼자뿐인 20대 등 힘든 상황의 인물들을
통해 현실을 보여주며
우리가 느끼는 마음을 잘 보여준다.

경남대표도서관 추천 도서



정리의 기술

곤도 마리에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일 595.4-곤25정

“아직도 정리를 안 끝냈나요?”

긴 시간이 나는 휴가기간이 아니면
우리는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곳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내서 방과 집을 정리하는 건
어떨까요?

정리 정돈법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곤도 마리에가 정리·정돈·수납의 모든 것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 더 보야한다면 넷플릭스
<곤도마리에 :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경남대표도서관 추천 도서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우종영 지음

메이븐

일 199.1-우75나

30년간 아픈 나무들을 돌봐온 나무 의사 우종영.

인생의 어려운 질문에 부딪칠 때마다
항상 나무에게서 해답을 얻었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이 책은 그가 세상 그 무엇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 내는
나무들로부터 배운 단단한 삶의 태도
47가지를 담고 있다.

경남대표도서관 추천 도서



역사의 쓸모

최태성 지음

다산초당

일 911-최883역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나는
역사에서 답을 찾았다”**

역사에서 찾은 자유롭고 떳떳한 삶을 위한
22가지 통찰. 수백 년 전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역사 사용 설명서.

이 책을 통해 역사를 삶의 안내서로
삼는다면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 역사
앞에서 떳떳한 삶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소리질러, 운동장

진형민 지음

창비

아 808.91-창48창-279

야구부에서 쫓겨난 김동해와 야구부에 들어가지 못한 공희주가 막야구부를 만들어 즐겁게 야구하는 모습을 그렸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 정의, 진리, 평등 등의 소중한 가치를 담아낸 작가의 역량이 단연 돋보인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면서 조금씩 야구공처럼 단단해져 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당차고 활달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작품.